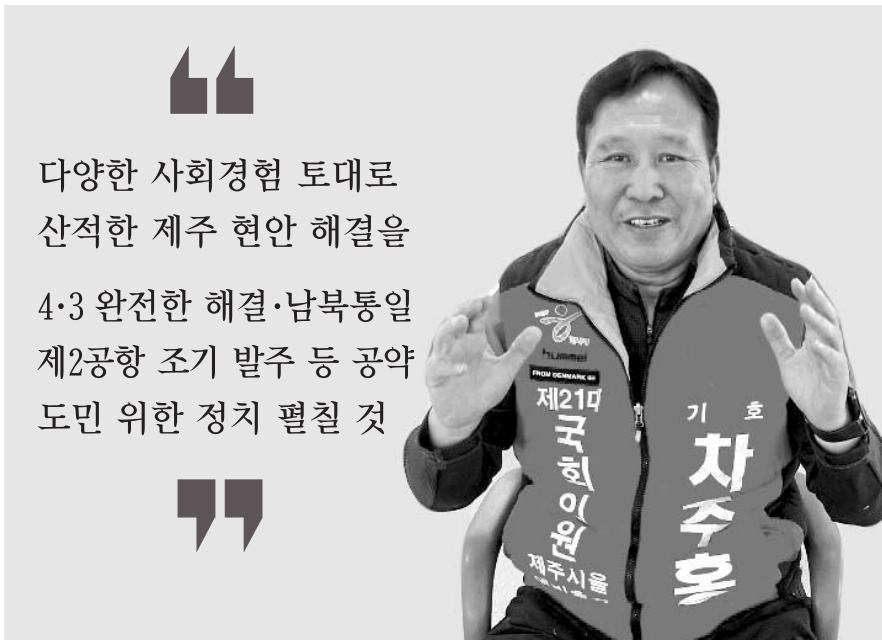


선택 2020 4·15총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제주시를 선거구 (13) 한나라당 차주홍 예비후보

# “난장판인 국회 정상화 이뤄낼 것”

**>> 차주홍 프로필**

- ▷생년월일=1958년 3월 27일
- ▷출신지=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학력=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주요 경력=(원)한나라당 부총재,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다양한 사회경험 토대로 산적한 제주 현안 해결을 4·3 완전한 해결·남북통일 제2공항 조기 발주 등 공약 도민 위한 정치 펼칠 것

### ▶출마 결심 이유는

=저는 46년 전 제주 조천중학교 3학년에 다닐 때부터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민의 꿈과 희망인 남북통일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한 바 있다. 이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정의의 최후의 승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 희망을 잃은 적 없이 지금까지 가슴에 안고 있다. 막노동에서 경리학원 강사, 원장을 거쳐 25년 전에 아무도 인수하지 않은 (유)유일교통을 인수하고, 또 15년 전에는 휴업에 있는 (주)대명교통을 인수해 정상화시켰다. 출마 이유는 국민의 명(命)인 ▷4·3의 완전한 해결과 보상 ▷남북통일 ▷제주 제2공항 조기발주 ▷난장판인 국회 정상화 ▷약속적인 입법·사법·행정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 ▶주요 공약은

=첫째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나서겠다. 제주4·3이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서민의 생각을 청취해 해법을 찾아야 함에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야말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겠다. 새로운 시대, 강력한 실천의 힘, 제주도민의 힘으로 해내겠다. 둘째로 제주 제2공항을 조기에 발주하겠다. 제2공항 예정지 발표가 5년이 지났지만 무능한 정치인, 난장판인 국회, 무능한 정부로 인해 현재까지도 미시수로 남아 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은 공

한나라당 차주홍 예비후보는 산적한 제주 현안을 해결하고 난장판인 국회를 정상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조건이 좋으며, 환경훼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고 평가되는 등 입지조건이 다른 후보지보다 뛰어나다. 국회의원 완장을 저에게 준다면 제2공항이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남북통일을 이뤄 국방예산을 80대 이상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국방예산은 1년에 약 50조원 이상 사용되고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남아도는 예산으로 노인 주택무상대여, 입을 것 무상, 먹을 것 무상, 치료비 무상, 운동시설 무상 등 국가가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편하고 즐겁게 살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

넷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 제주의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이 이자를 내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연체이자를 10년 동안 감면해주는 법률을 제정하겠다.

다섯째, 농가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육성법을 제정하겠다. 농촌에 농산물 직불제는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의 최저 생계비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기준에 맞는 농산물 육성법을 만들어 건전한 농산물 수급안정, 가격안정

을 도모하겠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2공항은 찬성이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왜 반대하는가를 철저히 파악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공청회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도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46년 전부터 오직 대한민국과 북한 형제들을 생각하며 통일을 마음 속에 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농산물 가격, 자영업자 생계 보장문제, 제2공항 문제, 제주4·3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장판인 국회를 정리할 수 있는 실천의 힘을 갖고 있다.

▶필승 전략은 =도민의 마음을 품어 안고, 도민의 소리에 존중하고,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는 46년 동안 도민의 왕머슴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때가 왔다. 제주의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56 >>제21대 국회의원·도의원 재보궐 선거 브리핑

#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 “농어민 세금 부담 경감” “이해찬, 임 교수에 사과를”

<p><b>제주시갑 문윤택 예비후보</b></p> <p>더불어민주당 문윤택(사진) 예비후보는 18일 “제주에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건물주·소상공인이 함께 살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착한 임대인 상생운동’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도민이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은지기자</p>	<p><b>제주시갑 고경실 예비후보</b></p> <p>미래통합당 고경실(사진) 예비후보는 18일 “영농지 공시지가 급등으로 보유세 세부담이 가중돼 경작중인 농경지를 팔고 세금을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세법을 개정하는 등 영농지 보유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은지기자</p>	<p><b>제주시갑 김영진 예비후보</b></p> <p>미래통합당 김영진(사진) 예비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미리 교수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국민주권의 올바른 행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회로 승화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p>
---	---	---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코로나19 종합대책 필요” “오영훈 발언 이의 제기”

<p><b>제주시갑 양길현 예비후보</b></p> <p>바른미래당 양길현(사진) 예비후보는 18일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도민향토기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델 발굴 차원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도민향토자본과 공적기금이 반반씩 출자되도록 하면 이윤추구의 기업논리가 아닌 생태존중이라는 한라산 가치실현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p>	<p><b>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b></p> <p>정의당 고병수(사진) 예비후보는 1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바이러스 재해’로 선포하고, 보건 의료 영역을 비롯해 경제·사회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p>	<p><b>제주시를 부승찬 예비후보</b></p> <p>더불어민주당 부승찬(사진) 예비후보는 18일 “지난 17일 오영훈 예비보가 제주시을 선거구의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내인지, 밖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적인 기분으로는 범위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발언은 결국 오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저를 앞섰다는 내용과 다를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 윤리위 등에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송은범기자</p>
---	--	---

# “제주 해양레포츠센터 설립” “중문오일시장 관광형 육성” “알뜨르 부지 지역환원을”

<p><b>제주시를 김효 예비후보</b></p> <p>미래통합당 김효(사진) 예비후보는 18일 “제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포츠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함덕해수욕장에 해양레포츠센터를 설립해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며 “또 해양레포츠 분야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은범기자</p>	<p><b>대천·중문·예래동 고대지</b></p> <p>무소속 고대지(사진)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문오일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중문오일시장 이전이 확정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전을 계기로 침체된 중문오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제주도 최고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태윤기자</p>	<p><b>대정읍 양병우 예비후보</b></p> <p>무소속 양병우(사진) 예비후보는 18일 “알뜨르비행장 부지 환원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대정지역 주민을 위해 환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 대책으로 우선 알뜨르비행장 부지 지역환원 대책위를 조직하고 알뜨르비행장 부지 지역환원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p>
--	---	---

##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연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